

시끌벅적 e-스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이 많은 이유는?

스타들의 열애설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모른다. 결혼도 예외가 아니다. 스타들의 화려한 결혼식 이벤트를 비롯해 결혼식장에 어떤 연예인이 누구와 함께,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조차 네티즌들에겐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과 사귀는 스포츠 스타는 연예인만큼이나 인터넷에서 빠르게 이곳저곳으로 퍼날라지고 순식간에 검색어에 올라온다. 프로야구 선수 박한이(28·삼성라이온즈)와 주몽의 '무더이' 조명진의 열애 소식도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박한이는 지난 2001년 삼성에 입단, 주전 중견수로 활약하는 등 삼성의 간판 스타다. 조명진은 MBC 텔레비전 공채 29기로 '주몽'에서 유화부인의 측근 무덕역에 맡았다. 국내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은 이외에도 많다. 우선 '라이언킹'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모델 출신 부인 이승정(25)씨를 비롯해 축구 선수 안정현(31·수원 삼성)과 미스코리아 출신 부인 이해원(28)씨가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 또 송종국(28·수원 삼성)선수와 부인 박연수(28)씨도 축구 선수와 모델 출신 탤런트 커플이며 축구선수 김남일(30·수원 삼성)과 김보민(29) KBS 아나운서도 '결혼 초읽기'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소문난 사이다. 이외 지난 1월 결혼식을 올린 탤런트 왕빛나(26)와 프로 골퍼 정승우(32)씨 부부, 영화배우 겸 가수 임창정(34)과 프로 골퍼 김현주(23)씨, 가수 윤종신과 전 테니스 국가 대표 출신 전미라씨 등도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부부다. 지난 70~90년대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과 가수 옥희씨, 허정무(51·전남드래곤즈)감독과 방송 MC 최미나씨, 가수 유현상과 아시아의 인어 수영선수 최윤희, 이희희와 탤런트 최란씨 등도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 삼성)과 미스코리아 출신 부인 이해원(28)씨가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커플. 또 송종국(28·수원 삼성)선수와 부인 박연수(28)씨도 축구 선수와 모델 출신 탤런트 커플이며 축구선수 김남일(30·수원 삼성)과 김보민(29) KBS 아나운서도 '결혼 초읽기'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소문난 사이다. 이외 지난 1월 결혼식을 올린 탤런트 왕빛나(26)와 프로 골퍼 정승우(32)씨 부부, 영화배우 겸 가수 임창정(34)과 프로 골퍼 김현주(23)씨, 가수 윤종신과 전 테니스 국가 대표 출신 전미라씨 등도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 부부다. 지난 70~90년대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과 가수 옥희씨, 허정무(51·전남드래곤즈)감독과 방송 MC 최미나씨, 가수 유현상과 아시아의 인어 수영선수 최윤희, 이희희와 탤런트 최란씨 등도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의 결혼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25~35세 미혼 남녀 설문조사 이혼한 결혼 상대자의 자녀 유무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관대하다 이혼한 상대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여성이 다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이 지난해 11월 미혼남녀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이혼한 상대와도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74.3%)이 여성(71.4%)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이혼한 상대와는 결혼

이혼, 큰 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7.7% (남 25.6%·여 28.4%)에 그쳤다. 상당수 미혼 남녀들이 이혼 경력에 큰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사랑한다면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경우도 33.3%(남 47.5%·여 22.0%)에 달했다. 또 '슬하에 자녀가 없다면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6%(남 22.5%·여 44.1%), '자녀가 있더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결혼하겠다'는 경우는 4.2%(남 2.5%·여 7%), '양육 중인 자녀가 있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2.6%로 조사됐다. 생활태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밖에 '부모님의 반대'가 총 15% (남 19.7%, 여 14.9%)로 조사됐다. 한편 결혼상대의 나이와 이혼경력에 대해서는 총 57.7% (남성 60.1%, 여성 56%)가 이혼경력의 유무보다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해, 나이가 적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결혼상대를 선호하는 추세, 그리고 이혼율의 증가로 재혼자에 대한 편견이 적어졌음을 동시에 입증해 주었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 (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57. '미린보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지난 25일 오후 호주 멜버른에서 펼쳐진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기적같은 역전 드림을 연출하며 3분44초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태환 ② 강홍환 ③ 이안소프 ④ 그랜트 해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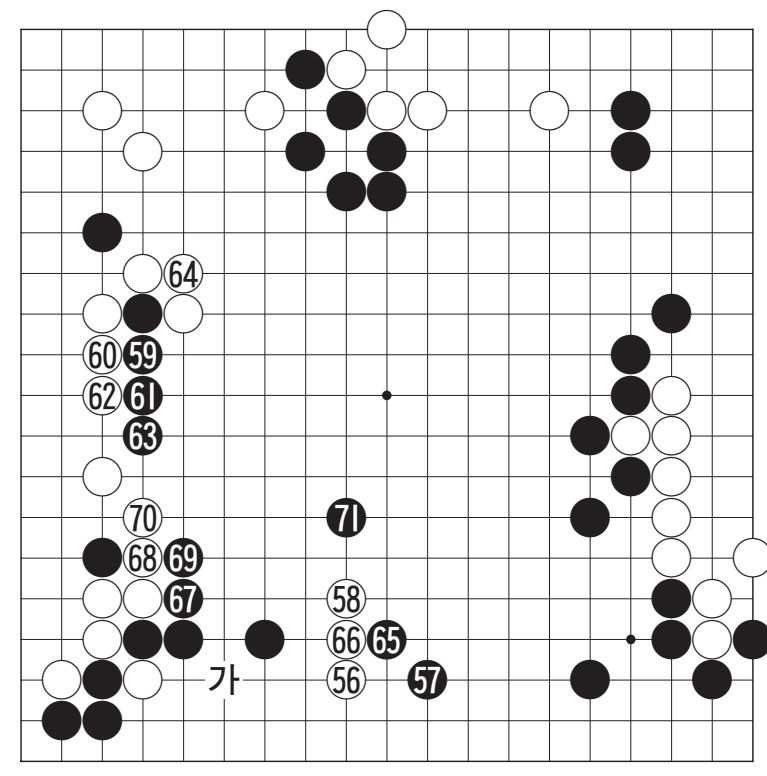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9일(음 2월 11일 壬戌)

- 36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48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된다. 60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72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마음 편히 일하라. 84년생 돈이 생기자 바로 쓸 구멍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1, 27
37년생 가정불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니 서로 서로 양보하라. 49년생 구절수가 타이므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61년생 오늘은 안전을 전을 해야 하리라. 73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리라. 85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행운의 숫자 : 18, 30
38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50년생 인생은 연출이다 멋지게 보내라. 62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4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14, 33
39년생 은 식물이 평안하니 안심하고 지내라. 51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63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75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0, 28
40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면 자녀에게 돌아온다. 52년생 앞길 살뜰히 지켜야 하리라. 64년생 나쁜 일이 찾아오니 주의하면 대하는 면할 것이다. 76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12, 35
41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법이다. 53년생 어려움을 잠시 일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5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77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하라. 행운의 숫자 : 22, 26
42년생 듣기 좋은 말은 되기 뒤에 주의하여 들으라. 54년생 다투면 손해 양보하면 득이 된다. 66년생 지금은 고요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8년생 갈수록 돌아갈라 사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02, 44
43년생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녀의 주변도 살펴야 한다. 55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걱정은 없다. 67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라 마음은 편안하다. 79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다. 행운의 숫자 : 23, 25
44년생 편안한 하루이나 큰 득은 없다. 56년생 절정은 내일이 손에 가 보인다. 68년생 오래 동안 딱한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0년생 초고후한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03, 43
45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57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채워지리라. 69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81년생 마음이 갈팡질팡 하니 신신의 안정을 찾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4, 16
46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리라. 58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자가 생길 수다. 70년생 마음을 가져 보라 어려울 일도 풀리리라. 82년생 좋은 웃음이 즐거움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7, 31
47년생 식욕이 넘치니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71년생 새 문자로 복잡한 일이 빌빌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3년생 지난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 수도 있으니 살펴 보라. 행운의 숫자 : 01, 45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서없이!!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1기 SK가스비 프로10결전 치밀한 사전공작 5보(56~71) 목진석, 명인전서 이창호 꺾어 목진석 9단이 지난 27일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이창호 9단에게 283수 끝에 백 2집 반승을 거뒀다. 백을 잡은 목 9단은 하반에서 멋진 타개습세를 선보이며 기선을 잡은 뒤 한 때 9단의 추격을 허용했으나 막판 뒷심을 발휘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목진석 9단은 지난 2004년 제8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1국 이후 이창호 9단에게 6연패를 당한 끝에 모처럼 승리를 쟁겼다. 대회 총 상금규모는 7억원이며 우승 상금은 1억원(준우승 3천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바둑소식 목진석, 명인전서 이창호 꺾어 목진석 9단이 지난 27일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이창호 9단에게 283수 끝에 백 2집 반승을 거뒀다. 백을 잡은 목 9단은 하반에서 멋진 타개습세를 선보이며 기선을 잡은 뒤 한 때 9단의 추격을 허용했으나 막판 뒷심을 발휘해 승부를 결정지었다. 목진석 9단은 지난 2004년 제8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1국 이후 이창호 9단에게 6연패를 당한 끝에 모처럼 승리를 쟁겼다. 대회 총 상금규모는 7억원이며 우승 상금은 1억원(준우승 3천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71> Don't I know it! 잘 알고 있어! A:The speech was totally boring. B:How long did he talk for? A:It seemed like hours. He never knows when to shut up. B:Don't I know it! Did I tell you about the time he visited me at my house? A:그 연설은 정말 지루했었어. B:얼마나 길게 말했길래? A:여러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는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B:날 잘 알지! 내가 자네한테 말했잖아! 그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를 말야. totally : 완전히, 모조리 boring : 지루한, 따분한 Don't I know it! = You're right! = You can say that again = I might have guessed(그럴 거라 생각했지)

오하오우 니혼고 <871> 掛(か)け間違(まちが)いのようですね 잘 못 거신 것 같습니다 A:もしもし、成田(なりた)さんのお宅(たく)ですか? B:いいえ、違(ちが)いますが、何番(なんばん)にお掛(か)けですか? A:33511103じゃありませんか? B:いいえ、掛(か)け間違(まちが)いのようですね。 A:여보세요. 나라타씨 댁입니까? B:아니요, 틀렸습니다. 몇번 거셨습니까? A:33511103이 아닙니까? B:아니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間違(まちが)う: 문제나 계산등을 틀리거나, 어떤 실수를 했거나 한 경우 사용 違(ちが)う: 아니다, 다르다고 말하고 싶을 때에 사용 掛(か)ける: 걸다

니하오 쑹구워 <62> 四季发财 부자 되세요 A:明天(明天)有(有)个(个)朋友(朋友)请(请)我(我)吃饭(吃饭), 我(我)该(该)怎么办(怎么办)? Mingtian you zhe you qing wu chifan wo zhe keneng qian shi shuo shenme zhu? B:明天(明天)有(有)个(个)朋友(朋友)请(请)我(我)吃饭(吃饭), 我(我)该(该)怎么办(怎么办)? A:明天(明天)有(有)个(个)朋友(朋友)请(请)我(我)吃饭(吃饭), 我(我)该(该)怎么办(怎么办)? B:明天(明天)有(有)个(个)朋友(朋友)请(请)我(我)吃饭(吃饭), 我(我)该(该)怎么办(怎么办)? A: 내일 어떤 친구가 나를 초대했어. 내가 뭐라고 할까? B: 왜 너를 초대 했는대? A: 그녀의 회사 개업식이다. B: 그렇. 네가 그녀에게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돼. 做客(zuoke) 손님 데리. 拜会(baihui) 개업식. 四季发财(sijifacai) 부자 되다.

한자 이야기 <489> 畫龍點睛(화룡점정) 그림 화, 용 룡, 점찍을 점, 눈동자 정 화룡점정(畫龍點睛)은 용을 그리는데 눈동자도 그려 넣는다는 뜻이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킴을 비유하고, 또는 사소한 것으로 전체가 돋보이고 활기를 띠며 살아남을 비유한다. 남북조 시대, 남조인 양(梁)나라에 장승요(張僧繇)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군장군(右軍將軍)과 오희태수(吳興太守)를 지냈으며, 붓 하나로 실물을 똑같이 그리는 화가로도 유명했다. 어느 날, 장승요는 금릉(金陵·남경)에 있는 안락사(安樂寺) 주지로부터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절의 벽에다 검은 구름을 헤치고 이레라도 곧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두 마리의 용을 그렸다. 그런데 한가지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은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눈동자를 그려 넣으라고 성화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용 한 마리에 눈동자를 그려 넣기로 하고, 붓을 들어 용의 눈에 '획'하고 점을 찍었다. 그러자 돌연 벽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한 마리의 용이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은 용은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수경기·水滸記)